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 (蓮花寺 木刻釋迦如來說法像)	1점	(외곽 틀) 세로 160 가로 200 (작품) 세로 148 가로 176.3	1901년	서울시 동대문구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
봉원사 약사불회도 (奉元寺 藥師佛繪圖)	1점	(전체크기) 세로149.1, 가로 217.9 (화면크기) 세로142.2, 가로 209.8	1894年 (光緒甲午, 高宗31)	서울시 서대문구 (대한불교태고종 봉원사)
봉원사 독성도 (奉元寺 獨聖圖)	1점	(전체) 세로 148.2 가로 187.2 (화면) 세로 140 가로 167	1904년	서울시 서대문구 (대한불교태고종 봉원사)
봉원사 산신도 (奉元寺 山神圖)	1점	세로 182 가로 152	1905년	서울시 서대문구 (대한불교태고종 봉원사)

나.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 명공묘선육방옹시집(名公妙選陸放翁詩集) 】

<명공묘선육방옹시집>은 원(元)·명(明) 양대에 걸쳐 가장 광범위하게 통용되던 육유(陸游, 1125 ~ 1210)의 시선집 중에 하나로, 남송의 나의(羅椅, 1214 ~ ?)가 가려뽑은 전집(前集)과 송말원초(宋末元初)의 문인 유진옹(劉辰翁, 1233 ~ 1297)이 가려뽑은 후집(後集)을 합친 것임. 나 의가 선집한 전집은 10권, 유진옹이 선집한 후집은 8권으로 이루어져 있음.

조사 대상본은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 소자(小字)로 간행한 책으로, 본문 첫 장과 마지막 장이 닳아서 일부 결락되었지만 인쇄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 동일한 서명의 판본으로는 앞선 시기인 1465년 전라감영 목판본과 16세기 후반 목판본과 목활자본 등이 남아 있으며, 을해자본은 현재까지 국내에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음.

조사된 <명공묘선육방옹시집>은 18권 1책이 온전히 남아 있으나, 중간본 등에 수록되어 있는 나경(羅愍)의 서문과 목록, 나의를 권점(圈點), 유진옹의 평어(評語) 등이 수록되어 있지 않음. 국내에는 동국대 도서관에 1465년 전라감영본이 전하고, 국립중앙도서관·서울대 규장각·계명대 도서관 등에 16세기 후반 중간본이 영본으로 남아 있으나, 계명대 도서관본은 월천 조목의 수택본이며, 동국대 도서관의 것은 16세기 후반의 목활자본의 영본임.

본 문화재는 서정적인 내용이 많은 전집과 호방하고 비분강개의 내용이 많은 후집으로 구성되어 육유 시의 특징을 이해하거나 그의 시풍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조선전기 문인들이 꾸준히 애호한 그의 시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조사 대상자료는 현전본 중에는 유일한 을해자 간본으로 전존 수량이 거의 없고, 동아시아 지식 유통의 측면에서 학술적 연구가치도 큼. 따라서 동일한 시점에 간행된 판본이 매우 드물게 남아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 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개운사 패불도와 패불함(開運寺 掛佛圖, 掛佛函) 】

<개운사 패불도>와 같이 본존이 연꽃을 들고 있고, 하단에 관음보살을 배치한 독특한 도상은 19세기 후반 서울, 경기지역에서 성행했던 패불도의 한 형식임. 이 패불도의 시주자로는 다섯명의 상궁인 조씨보성화(趙氏普性花), 조씨(趙氏), 석씨구품화(釋氏九品花), 장씨월광화(張氏月光花), 장씨상품화(張氏上品花)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청신녀가 참가하고 있어, 왕실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음.

<개운사 패불도>는 19세기 후반기 서울,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화승인 응석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것으로, 당시 유행하던 ‘연꽃을 든 본존’ 과 ‘관음보살’ 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도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식의 패불도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임. 현재 개운사에는 화승 응석이 제자들과 함께 제작한 <개운사 지장시왕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15호)>와 <개운사 신중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13호)>가 지정되어 있으며, <개운사 패불도>와 거의 동일한 도상을 보여주는 <화계사 패불도(1886년)>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86호로 지정되어 있음.

<개운사 패불함>은 1879년에 제작된 <석가불패불도(釋迦佛掛佛圖)>를 보관하는 용도이며, 개운사 대웅전의 불단 옆에 보관되어 있음. 소나무판재로 제작한 윗단이 궤 형식으로, 몸체 네 모서리는 사개짜임, 바닥과 뚜껑 상면은 맞짜임하여 못으로 고정함. 장식의 재료는 모두 무쇠이며, 제비초리형 자물쇠 바탕·낙목 바탕, 활형 들쇠, 사슬고리형 경첩, 감잡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명문이나 표식은 없지만 목재의 상태와 짜임, 장식의 재료와 형태로 보아 패불도와 동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개운사 패불함> 표면의 마름모꼴 금박문은 <화계사 아미타패불함>·<안양암 지장시왕패불함>·<연화사 패불함>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서울지역 사찰에서 왕실 인사들이 발원한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패불도를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패불함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됨.

따라서 본 문화재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패불도와 함께 패불함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蓮花寺 木刻釋迦如來說法像) 】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은 1901년에 제작되었을 정황을 전하는 문헌기록이 있음. 조선후기의 새로운 장르인 목각설법상은 전체 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주로 아미타 설법을 주제로 만들어지는데,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은 석가의 설법을 주제로 한 점이 특징임. 구도는 19세기 후반의 일반적인 석가모니 후불화와 유사하여 연화사 불화 불사를 담당한 서울경기지역 불화승이 초본을 제작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대시기 조각과 불화의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는 자료임.

등장인물의 얼굴은 조선후기 불상의 평면적인 얼굴에 비해 가름하고 입체적임. 본존의 대좌에는 목각설법상에 전통적으로 표현된 상현좌가 적용되었음. 대좌 아래에는 당시 불화에서 볼 수 있는 연줄기와 식물문양을 표현하되 좌우대칭이 분명한 팔메트연화문을 조각하였음. 석가를 둘러싼 6위의 보살은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미륵, 세지로 보임. 백의관음의 이와 같은 정병을 든 모습은 조선후기에 보이지만 20세기 불화에서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관음이 손가락을

퍼서 석가를 가리키는 모습에서 근대적인 특징이 읽힘. 가섭과 아난은 현실인물에 맞게 표현하였고 사천왕은 2구로 축소 배치하였음. 20세기 초반의 사진이 있어 원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은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요소를 사용하는 20세기 초반 불교미술의 특징을 보여줌. 19-20세기 불교미술의 전환 점에서 불교미술 제작상황과 후원, 시대 변화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봉원사 약사불회도(奉元寺 藥師佛繪圖) 】

1894년에 그려져 봉원사 만월전(滿月殿)에 봉안된 본 <봉원사 약사불회도>는 중앙 약사여래 중심으로 일광·월광보살, 사천왕상 2위, 약사 12신장으로 구성된 군도형식임. 19세기 후반기 서울, 경기지역의 왕실발원불화를 가장 많이 조성한 대표적 수화승 가운데 한 분인 금곡 영환 등 17명의 화승이 제작한 것으로, 이중 5명(덕월당응륜(德月堂應輪), 금화당기경(錦華堂機淸), 명응당환감(明應堂幻鑑), 범화당윤익(梵華堂潤益), 재겸(在謙))이 1901년에 고종의 후궁 엄비가 시주, 발원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3호)>에 참가했음.

이 불화는 금곡 영환의 말기 작품인 동시에 왕실발원불화에 참여했던 당대의 대표적인 화승들이 주관하여 조성한 것으로 가름한 얼굴에 섬세하게 묘사된 눈, 코, 입 등 각 세부 표현이 정교하며, 신체의 적절한 비례감과 안정된 구도, 명확한 필선 및 선명한 색감에서 전통적인 불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음.

지금까지 이 불화는 제작년대 등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울시와 함께 한 문화 재 지정조사를 통해년대 및 화승의 명단이 확인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불화는 서울지역에 희귀하게 남아있는 19세기 약사 불회도의 화풍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봉원사 독성도(奉元寺 獨聖圖) 】

<봉원사 독성도>는 원래 봉원사 만월전에 봉안되었던 <독성도>이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현재 우리가 있는 나무 액자에 넣어 봉원사 수장고에 보관 중임. 화면 중앙 바위 위에 독성이 왼손에 석장을 잡고 윤왕좌 자세로 앉아 있는 구조이며, 다른 독성도와 다르게 시립한 동자, 향로와 같은 기물 등은 묘사하지 않고 화면 중앙에 오직 독성만 표현하여 집중도가 있음.

<봉원사 독성도>의 화기를 살펴보면 ‘金魚片手 漢峯堂○○’ 이라고 쓰여 있어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서울·경기지역에서 큰 활약을 보인 ‘창엽(瑯曄)’ 일 가능성이 큼. 19세기 후반~20세기초반 서울·경기지역의 여러 화승들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창엽’은 1868년 조성의 <남양주 홍국사 감로왕도>를 시작으로 <홍국사 감로왕도, 1868년> 등의 수화승으로 불화를 제작한 ‘영환’, ‘창엽’ 자신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서울 <봉은사 대웅전 감로왕도(1892년)>, 서울 <봉국사시왕도 ; 13, 24대왕(1898년)> 등을 통해서는 ‘윤감, 응륜, 승의, 축연, 봉법, 상규’ 등과의 교류가 파악됨.

따라서 <봉원사 독성도>는 제작 시기, 화승 및 계보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봉원사 산신도(奉元寺 山神圖) 】

<봉원사 산신도>는 만월전(滿月殿)에 봉안되었던 불화로서 현재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음. 만월전은 약사유리광여래(藥師琉璃光如來)를 주불로서 상단에 모시고 있으며, 1904년 산신단(山神壇)을 만들어 1905년에 산신도를 봉안하였음.

본 조사 대상은 화기를 통해 광무9년(1905) 8월 10일, ‘봉명(奉命)’ 즉 대한제국 황실의 명을 받아 조성된 불화임. 시주자는 상궁 1명과 강익형(姜益馨)이며, 불화를 그린 금어는 혜과봉감(慧果奉鑑), 한국돈법(漢谷頓法)이며, 이들 밑에서 편수로 참여한 인물은 두흙을 비롯한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

1905년 9월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의 강요가 시작되던 시기임. 그해 음력 8월 왕실이 발원하여 대대적으로 봉원사에 불화를 조성했던 이유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불교에 의지하여 극복하려했던 간절함이 원인이 되었을 것임. <봉원사 산신도>는 다른 산신도보다 유난히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왕의 이미지로 구현된 산왕의 형상은 경상북도와 서울·경기 일대에서 주로 보임.

따라서 <봉원사 산신도>와 같은 유형의 불화로서 <지장암 산신도>(1901), <원흥암 산신도>(1903)가 유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대한제국기의 암울한 국제정세가 담긴 역사성과 산신도상의 특이성 등을 고려한다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적절함.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명공묘선육방옹시집(名公妙選陸放翁詩集) 】**

『名公妙選陸放翁詩集』은 元·明 양대에 걸쳐 가장 광범위하게 통용되던 陸游(1125 ~ 1210)의 시선집 중에 하나로, 남송의 羅椅(1214~?)가 가려뽑은 前集과 宋末 元初의 문인 劉辰翁(1233 ~ 1297)이 가려뽑은 後集을 합친 것이다. 나의가 선집한 전집은 10권, 유진웅이 선집한 후집은 8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의와 유진웅이 엮은 두 選集은 원래 별도로 전해지던 것을 元代의 坊刻書肆에서 합편하여 한 책으로 만든 것이고, 편집자는 미상이다. 시집의 원작자인 육유는 남송의 문인으로, 자는 務觀, 호는 放翁이며, 越州 山陰 사람이다. 詩와 詞, 散文에 능했고, 史學에 조예가 깊었다.

나의의 자는 子遠, 호는 澗谷, 남송 吉州 廬陵 사람이다. 유진웅의 자는 會孟, 호는 須溪이며 역시 길주 여릉 사람으로 남송이 망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하다 생을 마쳤다.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문예창작과 批評에 진력하였는데, 憂國의 정을 토로하는 詞를 많이 지었으며, 조선에서 그의 평점과 비점이 달린 문학서들이 비교적 많이 유통되었다. 권1의 권수제인 『名公妙選陸放翁詩集』이라는 서명과 함께 전집의 권수제인 『澗谷妙選陸放翁詩集』, 후집의 권수제인 『須溪妙選陸放翁詩集』이라는 서명은 선집한 인물의 號를 바탕으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본은 금속활자인 乙亥字 小字로 간행한 책이다. 본문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닳아서 일부 결락이 있지만 인쇄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동일한 서명의 판본으로는 앞선 시기인 1465년 전라감영 목판본과 16세기 후반 목판본과 목활자본 등이 남아있으며, 을해자본은 현재까지 국내에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0.4cm 가로 12.7cm이며 본문은 14行 26字, 책의 크기는 세로 27.0cm 가로 16.2cm 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서명은 裝訂은 후대에 새로 개장하였으며 五針眼의 線裝이다. 판심의 어미는 上下向黑魚尾를 기반으로 하되 판심에 전집과 후집에 각각 “前一”, “後一” 과 같은 방식으로 편명과 장수를 표시하였다. 장서인으로 ‘00世家’, ‘張氏家藏’ 이 날인되어 있으며, 일부 書眉에는 간단한 주석도 필사해 두었다.

전체 분량은 1책으로 내용은 전집 권1~10, 후집 권1~8, 모두 18권이다. 전집 권1의 卷首題는 ‘名公妙選陸放翁詩前集’ 이고, 그 다음 항에 “放翁陸游務觀撰” 과 “澗谷羅椅子遠選” 이라고 쓴 두 줄의 저작역할표시가 있다. 전집 권1에는 古詩 17題, 권2에는 고시 21제, 권3부터 권8까지는 모두 七言八句로 권3 28제, 권4 24제, 권5 24제, 권6 24제, 권7 27제, 권8 18제를 실었으며, 권8에는 七言四句 12제를 이어서 실었다. 권9에는 칠언사구 28제, 권10에는 五言八句 33제와 五言四句 2제가 수록되어 있다. 후집 권1의 권수제는 “名公妙選陸放翁詩前集”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항에 “放翁陸游務觀撰” 과 “劉辰翁會孟選” 이라고 표시하였다. 후집 권1부터 권5까지는 모두 古詩로 권1 20제, 권2 21제, 권3 20제, 권4 20제, 권5 12제를 실었으며 권5에는 칠언팔구 18제를 이어서 실었다. 권6에는 칠언팔구 26제, 권7에는 칠언사구 29제, 권8에는 칠언사구 20제, 오언팔구 18제, 오언사구 3제가 수록되어 있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하였으며, 서문, 발문이 없고 본문은 온전하게 남아있다. 책 전체에 누습으로 얼룩진 흔적이 있으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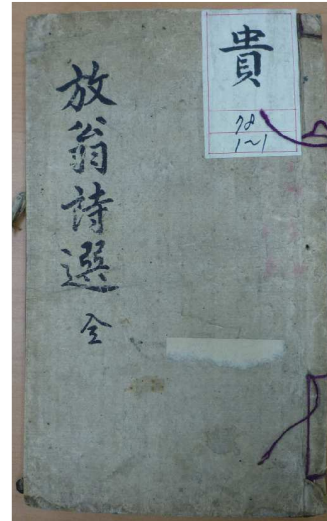
『名公妙選陸放翁詩集』은 陸游(1125~1210)의 시선집으로, 남송의 羅椅(1214~?)와 宋末 元初의 문인 유진웅(1233~1297)이 가려뽑은 것이다. 조선에 유입되어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 경에 금속활자인 을해자 소자로 간행된 책이다. 조사된 『名公妙選陸放翁詩集』은 18권 1책이 온전히 남아있다. 국내에는 동국대도서관에 1465년 전라감영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계명대도서관 등에 16세기 후반 중간본이 영본으로 남아있다. 계명대도서관본은 월천 조목의 수택본이며, 동도서관에 16세기 후반의 목활자본도 남아있으나 이 또한 영본이다. 을해자본에는 중간본 등에 수록되어 있는 나경의 서문과 목록, 나희의 권점, 유진웅의 평어 등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은 서정적인 내용이 많은 전집과 호방하고 비분강개의 내용이 많은 후집으로 구성되어 육유 시의 특징을 이해하거나 그의 시풍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 문인들이 꾸준히 애호한 그의 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료는 현전본 중에는 유일한 을해자 간본으로 전존 수량이 거의 없고, 동아시아 지식 유통의 측면에서 학술적 연구 가치도 크다. 동일한 시점에 간행된 판본이 매우 드물게 남아있으므로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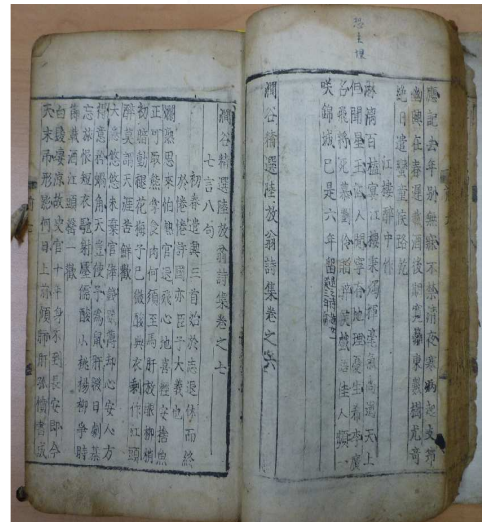
문화재 이미지

표지, 권수 사진



권말사진

본문 사진



【 개운사 괘불도와 괘불함((開運寺 掛佛圖, 掛佛函) 】

■ 개운사 괘불도

개운사 괘불도는 화면을 상단과 하단으로 구획하여 상단에는 입상의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상이 그려져 있으며, 하단에는 백의를 양어깨에 두른 관음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2구씩의 사천왕상을 배치하였다.

본존이 든 연꽃은 17세기부터 나타나는데,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석가불과 禪家에서 전해지는 拈花示衆을 도상화 한 것으로, 석가불상을 상징한다. 이 아래 하단 중앙에 위치한 관음보살좌상은 19세기 후반기 괘불화에 새롭게 첨가된 장면이다. 화염에 둘러싸인 키모양의 광배를 지닌 본존을 향해 합장한 두 제자 중 노승의 모습을 한 가섭의 얼굴은 바림했다. 천의의 영락장식이 화려한 관음보살은 보관에 화불이 표현되었으며 양손을 가운데로 모아 버드나무 가지를 꽃은 정병을 들고 있다. 사천왕은 각각 비파, 검, 용과 여의주, 보탑과 번을 들고 있다. 진홍색, 청색, 녹색이 어우러져있으며, 여래와 보살의 피부색에만 황색을 사용했다.

1879년에 수화승 응석을 비롯하여 돈조, 도의, 체훈, 복엽, 봉법, 법상, 봉업, 현조 등이 제작하였으며 다섯명의 상공이 불사에 시주했다.

앞서 언급한 관음보살좌상이 하단 중앙에 크게 그려진 예는 1885년 조성의 남양주 내원암 괘불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97호)와 1886년의 화계사 아미타괘불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86호)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개운사 괘불도는 화계사 괘불도와 화면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이 ‘연꽃을 든 본존’과 ‘관음보살’이 결합한 형식의 괘불도 세점 중 가장 년대가 올라가는 이 개운사 괘불도는 당시 대표적인 화승인 응석 및 상공들이 불사에 참여한 것으로, 괘불함(가로403cm, 세로39.8cm, 높이46cm)과 함께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19세기 후반 연꽃 든 석가불괘불도 조성 현황 >

명 칭	조성 연대	수화승	참여 화승	비고
개운사 괘불도	1879	응석(應釋)	頓照, 道儀, 體訓, 奉法	
봉은사 괘불도	1886	금조(巨照)	頓照, 天機, 體訓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31호
남양주 불암사 괘불도	1895	영환(永煥)	應釋, 瑄曄, 應崙, 性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15호
지장사 괘불도	1901	영명(永明)	秋山, 天熙, 虛谷, 巨巡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13호

< 괘불도 화기 >

A(향우)

緣化秩

光緒五年己卯閏三月

二十七日神供四月初

十日落成于三角山

開運寺掛佛一軀

奉安

證明 奉琪雪竇

幻翁喚眞

淸荷慶皓

誦呪 化庵頓悟

雲峰大悟

金魚片手 慶船應釋

萬波頓照

德海道儀

大虛體訓

比邱復燁

比邱奉法

比邱法常

比邱奉業

沙彌現照

持殿 應運淸厦

都監 碧醒慶植

別座比邱 輪悟

供司比邱 戒先

化主 滿船彩晟

影化脣灑

淨桶 柳七成

負木 淨順

鍾頭比邱 戒律

B(향좌)

大施主秩

淸信女乙酉生秋氏淸淨行

淸信女乙未生金氏開心花

坤命甲寅生嚴氏

淸信女戊子生李氏道心向

淸信女丙子生尹氏普光月

淸信女辛亥生梁氏

淸信女乙未生李氏白光蓮

淸信女庚寅生孔氏光明華

淸信女○午生鄭氏白蓮華

淸信女尙宮戊子生趙氏普性花

淸信女甲申生金氏普明花
 淸信女乙未生千氏日光慧
 淸信女壬寅生韓氏
 淸信女己亥生李氏大蓮花
 淸信女壬寅生李氏正喜行
 淸信女尙宮辛丑生趙氏
 淸信女己亥生李氏德水蓮
 乾禽丙戌生權氏

兩位

坤禽丙戌生洪氏
 坤命丁卯生金氏
 淸信女甲戌生金氏極樂花
 淸信女丙戌生金氏大智行
 淸信女丁丑生金氏般若行
 淸信女甲戌生李氏大覺花
 淸信女辛丑生車氏妙智慧
 淸信女乙巳生尹氏大仁華
 乾禽辛巳生金氏

兩位

坤禽癸巳生李氏
 乾禽庚寅生閔氏

兩位

坤禽丁巳生崔氏
 淸信女尙宮丁巳生張氏月光花
 淸信女尙宮庚申生張氏上品花
 淸信女尙宮壬戌生釋氏九品花
 淸信女丙寅生趙氏道活
 乾禽乙亥生李氏
 淸信女甲辰生金氏
 乾禽壬申生嚴氏

兩位

坤禽甲申生朴氏
 乾禽甲寅生閔氏
 淸信女壬寅生辛氏
 淸信女甲戌生黃氏無心花
 乾命己酉生趙成吉
 長子壬申生趙氏
 淸信女癸卯生李氏白蓮花

본 문화재는 오염 및 안료의 들뜸 및 박락 현상, 가로와 세로로 긁힘현상이 심하고 풀의 접착력 약화로 배접지가 떨어진 부분과 찢어진 부분이 많다. 특히 화면과 하축의 연결부가 찢어지는 등 보존상태가 매우 좋지않아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존이 연꽃을 들고 있고, 하단에 관음보살을 배치한 독특한 도상은 19세기 후반 서울, 경기 지역에서 성행했던 패불도의 한 형식으로, 화계사 패불도(1886년)에서도 거의 동일한 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패불도의 시주자로는 다섯명의 상궁인 趙氏普性花, 趙氏, 釋氏九品花, 張氏月光花, 張氏上品花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청신녀가 참가하고 있어, 왕실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현재 개운사에는 응석이 제자들과 함께 제작한 지장시왕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15호)와 신중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13호)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으며 개운사 패불도와 거의 동일한 도상을 보여주는 화계사 패불도(1886년)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86호로 지정되어 있다.

개운사 패불도는 19세기 후반기 서울,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화승인 응석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것으로, 당시 유행하던 ‘연꽃을 든 본존’ 과 ‘관음보살’ 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도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식의 패불도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개운사 패불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패불함과 함께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 개운사 패불함

개운사 패불함은 1879년에 제작된 <석가불패불도(釋迦佛掛佛圖)>를 보관하는 용도이며, 개운사 대웅전의 불단 옆에 보관되어 있다. 소나무판재로 제작한 가로 403cm, 세로 39.8cm, 높이 46cm 크기의 장방형 상자로 몸체의 네 모서리는 사개짜임으로 견고하게 물려있으며, 바닥과 뚜껑 상면은 맞짜임으로 제작하고, 못으로 고정하였다. 궤의 후면에는 뚜껑과 몸체를 연결하는 경첩을 달고 몸체에 뚜껑받이를 마련하여 위로 재껴 여닫는 윗단이 궤의 형식이다.

장식의 재료는 무쇠인데 몸통 전면에 2개의 제비초리형 자물쇠 바탕을, 뚜껑에는 낙목바탕을 배치하였으며, 몸통 중앙의 전면, 후면에 각각 3개씩의 활형들쇠를 배치하였다. 뚜껑과 몸통을 연결하는 후면의 경첩은 사슬고리형 경첩을 달았다. 특이하게 2개의 자물쇠바탕 중 향우측의 것에는 칠보문이 투각되어 있는데, 향좌측의 자물쇠바탕에는 아무 문양도 없다. 또 바닥과 몸통, 뚜껑 상면과 전의 이음새를 보강하는 단순한 형태의 판형 감잡이를 전면과 후면에 각각 6개씩, 측면에 2개씩 등 총 48개를 배치하였다.

패불함의 표면에는 옷칠을 하였으며, 몸통 전면에는 3단으로 나누어 상하단에는 작은 마름모꼴 금박문을 11개씩, 중단에는 좀 더 큰 마름모꼴 금박문을 10개 부착하여 장식하였다. 패불함의 내외부에는 별다른 명문이나 표식은 없지만 목재의 상태와 짜임, 장식의 재료와 형태로 보아 이 패불함은 패불도와 동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패불함에서 눈에 띄는 점은 마름모꼴의 금박문양이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금박문을 장식한 패불함은 표 1과 같이 <화계사 아미타패불함>, <안양암 아미타패불함>, <안양암 지장시왕패불함>, <연화사패불함>이 있다.

문화재명	제작 연대	수화승	참여 화승	지정 상황	발원
개운사 괘불도 (석가불괘불도)	1879	응석(應釋)	頓照, 道儀, 體訓, 奉法		상궁
화계사 괘불도 (아미타괘불도)	1886		金魚, 震徹, 機烟, 竺衍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86호	신정왕후와 효정왕후, 상궁
안양암 괘불도 (아미타괘불도)	1919	축연(竺演)	應釋, 瑯曄, 應崙, 性琮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3호	왕실의 원찰
안양암 괘불도 (지장사왕괘불도)	1930	축연(竺演)	秋山, 天熙, 虛谷, 巨巡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16호	왕실의 원찰
연화사 괘불도 (아미타괘불도)	1901	대은(大恩)	頓喜, 啓恩, 奉法, 漢峰, 應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42호	상궁

표 1. 금박문양 괘불함 현황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괘불함들의 공통점은 사찰이 서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중창, 또는 대대적인 불사, 특히 괘불의 제작에 왕실인사들의 발원 사실이 확인되며, 괘불들의 제작시기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있다.

서울시와 전국의 괘불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괘불도의 괘불함들 중에서도 다른 괘불함들은 금박문이 없으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금박문 괘불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개운사 괘불도와 형식적으로나 화사 등 관련이 있는 봉은사 괘불도와 불암사 괘불도, 지장사 괘불도, 화계사 괘불도와 같이 제작된 괘불함들 중에서는 화계사 괘불함에만 금박문이 부착되어 있다.

다만 괘불함 외에 불단과 대좌에 금박문이 부착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금박문 괘불함이 있는 화계사의 대웅전 불단에 괘불함과 같은 마름모꼴 금박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괘불함은 없지만 서울 성동구에 있는 미타사 극락전 불단에도 마름모꼴 금박문이 부착되어 있다.

전국에 있는 금박문 불단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명	연대	지역	비고	발원
화계사 대웅전 불단	조선후기	서울	금박문 괘불함	신정왕후와 효정왕후, 상궁
미타사 극락전 불단	조선후기	서울		조대비 관련(왕실)
남양주 흥국사 불단	1847	경기		왕실의 원찰
남양주 불암사 불단	20세기 전후	경기		왕실후원

표 2. 금박문양 불단 및 감실 현황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단에 금박문이 장식된 사찰들 역시 조선후기에서 근대기에 걸쳐 조성된 불단이며, 특히 전부 왕실과 관련이 있는 사찰들임을 알 수 있다.

개운사 패불함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원형도 장식의 부분적인 결실 외에는 완형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 외형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목재도 갈린 흔적이 없다. 다만 뚜껑 향좌측 전면 모서리와 몸체 향좌측 후면 상단에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는데, 결실이 심하지 않다. 금속 장식 역시 전면에 배치한 두 개의 자물쇠와 뚜껑과 몸체 각 모서리에 설치한 감잡이 48개 중 20개가 결실되었고 갈린 것은 없다. 그러나 감잡이가 결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쇠못을 박아 후보한 흔적이 있다.

개운사 패불함은 19세기 후반기 서울, 경기지역의 유행을 선도했던 개운사 패불을 제작할 당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운사 패불이 19세기 후반 유행했던 같은 유형의 패불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으로 당대 유명한 수하승 응석의 주도하에 제작되었고, 왕실 후원불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패불함 역시 께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패불함의 현 상태도 목재나 장식이 부분적으로 결실된 부위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며, 조선후기 목재계의 당대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름모꼴 금박문 장식은 당시 서울지역 왕실후원사찰의 패불함이나 불단장식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 패불함 지정상황을 보면 현재 개운사 패불계열의 화계사 아미타패불도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86호 <화계사 아미타패불도 및 오래도>로 지정될 당시 패불함도 포함하여 일괄 지정된 상태이며, 금박문은 없지만 홍천사 패불도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2호 홍천사 비로자나삼신패불도 및 패불함>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운사 패불의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 동반 유물인 패불함 역시 서울시의 유형문화재로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단 문화재 명칭에 있어서 패불도와 함께 패불함도 명시하는 것이 향후 명확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요즈음 영정함이나 초상함, 패불함 등도 해당 문화재가 지정될 때 일괄이 아니라 명칭에 명시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개운사 괘불도(1879년)



개운사 괘불함(1879년 추정)

【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蓮花寺 木刻釋迦如來說法像) 】

연화사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천장산(天藏山) 자락에 있다. 조선시대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의 무덤인 회릉(懷陵)의 원찰로 창건되고, 영조 초기에 의릉(懿陵,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의 능)의 원찰로 복구되었다. 임오군란 때 소실되어 1883년 이후 궁인 6인의 발원으로 중건되었다.

사찰 연혁이 「千手千眼觀音幀造成記」 등에 전한다. 조성기에 의하면 1901년에 목각설법상이 삼존상과 함께 완성되고, 불화는 천수관음, 지장, 감로, 칠성, 신중, 미륵, 괘불 등이 그려졌다.

…… 去壬午亂軍之衝火 堂宇寶相 無有孑遺 而癸未以來 宮人林氏大德華 爲之勸發 若尙宮崔氏無碍行 金氏般若行 金氏大慈行 崔氏淨土行 金氏大智行 同發信願 乃召刻手彩匠 以是年四月八日爲始 刻成靈山會及三尊像 畫飾千手聖幀及地藏 甘露 七星 神衆 彌勒 掛佛幀 一時粧成 靈山龍華之會 宛爾在此 …… 光武五年辛丑十月日 釋玩虛誌 <千手千眼觀音幀造成記>

이 기록은 퇴경당 권상로(1879-1965)가 채록한 문헌자료에 있다(권상로, 『退耕堂全書』 卷2, 1990, 이화문화사, p. 1249-1251). 조성기에서 각수를 불러 판각한 영산회가 목각설법상이다. 목각설법상은 문화재지정 명칭이며, 후불탱화를 조각으로 표현한 형태이다. 목각탱으로도 불렸으며, 1684년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복장기와 화기에는 판불(版佛) 또는 후불목탱(後佛木幀)으로 지칭되었다.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은 조선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장르이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75년)을 시작으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84년), <남장사 관음선원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94년),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782년),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등 현재 11점의 한정된 수량이 있다. 초기에 경상도지역에서 염불수행에 관련된 <권수정업왕생첩경도(勤修淨業往生捷徑圖)>를 반영하여 만들어졌으며, 대체적으로 아미타여래의 설법을 주제로 하는 전통이 유지되었다. 반면,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은 석가의 설법을 주제로 하여 주목된다.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은 석가여래가 연관형 광배를 배경으로 중심에 앉아있고, 6위의 보살과, 가섭, 아난존자, 2구의 사천왕이 좌우대칭 2단으로 서있다. 존상 간의 구획은 구름과 연꽃으로 표현되고 상서로운 구름이 장엄되어 있다. 모두 3매의 판목을 사용하였다.

<연화사 천수관음도와 신중도, 아미타괘불도> 등의 화기에 1901년 한봉당(漢峰堂) 응작(應作) 등이 화승을 맡았음을 적었다.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그들이 목각설법상의 초본도 제작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은 19세기 후반의 일반적인 석가모니 후불화의 구도를 보인다.

영산회의 주인공인 석가여래는 두상이 육계 구분 없이 솟아 정상계주와 중간계주가 표현되었다. 얼굴은 가름하고 눈썹과 눈두덩 사이가 각이 져 있으며 미간콧대가 높아,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상의 넓적하고 평면적인 얼굴과 다른 근대기의 얼굴을 보인다.

수인은 오른손이 촉지인이며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가슴 앞으로 들어올렸다. 착의는 오른쪽 어깨를 가리는 변형 편단우견식이며 내의는 수평을 이룬다. 대의자락은 양련대좌 사이로 세 가닥이 흘러내린다. 일종의 상현좌 형태인 대의표현은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서부터 주요 목각설법상에 적용되었다. 대좌 아래에는 기존의 목각설법상에는 보이지 않는 연꽃줄기와 식물문양이 있다. 이는 19-20세기 불화에서 주존의 대좌 아래에 종종 표현된 것과 유사하다. 다만 연화사 목각설법상은 보다 더 좌우대칭이 분명한 팔메트연화문이다.

보살상은 9등신에 가까운 세장한 몸이다. 얼굴표현은 본존불과 유사하다. 모두 6위의 입상이

며 지물을 들거나 합장을 하고, 전신 혹은 반신을 드러낸다. 먼저, 본존 아래의 좌우에는 석가 모니여래의 협시보살인 문수와 보현보살이 서있다. 여래형 착의에 여의 혹은 연꽃가지를 들었고 무릎 아래에 종종 조선후기 보살상에 보이는 풀잎모양의 치견장식이 있다. 본존의 좌우 끝에는 관음과 지장보살이 배치되었다. 관음보살은 백의를 머리 위까지 쓰고 정병을 들었다. 지장보살은 두건을 쓰고 보주와 육환장을 들고 있다. 조선후기 석가모니후불화 등에서 이처럼 정병을 드는 관음보살을 볼 수 있고, 특히 20세기 초에 자주 목격된다. 다만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과 같이 약지와 계지로 정병의 목을 잡고 엄지와 검지를 펴 마치 본존을 가리키는 것 같은 자세는 독특하다. 안쪽 좌우에는 합장을 하고 천의를 걸친 보살이 있다. 명칭을 단정하기 어려우나, 석가여래를 주존으로 하는 6위 보살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안쪽 좌우보살은 미륵과 세지보살일 수 있다.

가섭과 아난존자는 석가의 제자이며 각각 본존을 향하여 합장하며 서있다. 좌측의 가섭은 염화시중의 미소로 알려진 선종의 초조이다. 우측의 아난은 석가의 설법을 암송한 교종의 초조이다. 제자상의 모습은 불보살과 달리 현실 그대로 늙거나 젊으며 귀가 길지 않다. 본존은 문수와 보현을 협시로 하며 가섭과 아난을 가까이 배치하고, 관음과 지장을 바깥쪽에 둠으로써 석가를 주존으로 하는 영산회의 도상을 보여준다.

사천왕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2구로 축소하여 표현하였다. 신체비례는 보살에 비해 단신이다. 불상 좌측의 천왕은 검을 들고 있어 동쪽을 수호하는 지국천왕으로 보인다. 불상 우측의 천왕은 오른손으로 용을 잡아 가슴 앞에서 쥐고 있으며 오른손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다. 남방을 지키는 증장천왕으로 보인다.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의 20세기 초의 사진이 안드레아스 에카르트(1884~1974)가 1929년에 출간한 『조선미술사』에 실려 있다. 그는 1909년부터 1928년까지 한국에 머물렀던 수도사이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1993년 이후 법당을 새로 지으면서 위치가 바뀌었고 단 집과 외연이 달라졌다. 삼존상의 협시보살은 목조로 된 문수와 보현보살(혹은 관음과 대세지보살)에서 지금은 석조의 관음과 지장보살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존상의 복장내용물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은 1901년에 제작되었을 정황을 전하는 문헌기록이 있다. 조선후기의 새로운 장르인 목각설법상은 전체 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주로 아미타 설법을 주제로 만들어지는데,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은 석가의 설법을 주제로 한 점이 특징이다. 구도는 19세기 후반의 일반적인 석가모니 후불화와 유사하여 연화사 불화 불사를 담당한 서울 경기지역 불화승이 초본을 제작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대시기 조각과 불화의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는 자료이다. 등장인물의 얼굴은 조선후기 불상의 평면적인 얼굴에 비해 가름하고 입체적이다. 본존의 대좌에는 목각설법상에 전통적으로 표현된 일종의 상현좌가 적용되었다. 대좌 아래에는 당시의 불화에서 볼 수 있는 연줄기와 식물문양을 표현하되 좌우대칭이 분명한 팔메트연화문을 조각하였다. 석가를 둘러싼 6위의 보살은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미륵, 세지로 보인다. 백의관음이 이와 같이 정병을 드는 모습이 조선후기에 보이지만 20세기 불화에서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관음이 손가락을 펴서 석가를 가리키는 모습에서 근대적인 특징이 읽힌다. 가섭과 아난은 현실인물에 맞게 표현하였고 사천왕은 2구로 축소 배치하였다. 20세기 초반의 사진이 있어 원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은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요소를 사용하는 20세기 초반 불교미술의 특징을 보여준다. 19-20세기 불교미술의 전환점에서 불교미술 제작상황과 후원, 시대 변화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연화사 목각석가여래설법상

【 봉원사 약사불회도(奉元寺 藥師佛繪圖) 】

만월전(滿月殿)에 봉안된 <봉원사 약사불회도>의 본존불인 약사여래의 명칭은 범문 Bhaishajyaguru, 음역하면 비살두루로(碑殺杜婁嚕)로 약사유리광여래(藥師琉璃光如來)라 부르며 동방유리정토(東方琉璃淨土)의 교주이다. 또 병을 고쳐주는 위대한 부처란 뜻으로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부른다.

구도는 화면 중앙의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일광·월광보살, 사천왕상 2위, 약사 12신장으로 구성된 군도형식이다. 화면 중앙에 약사여래는 연화줄기를 대좌로, 원형의 두·신광을 갖추고 선정인을 한 손 위에 금니가 찬란한 약호를 들고 결가부좌하였다. 이 좌우로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측면향으로 본존불을 향해 협시하고 있는데 각각 보관에 흰 달과 붉은 해가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단 좌우 양쪽 끝에 배치된 사천왕은 각기 지물로 긴 보검을 든 동방천왕, 그리고 오른손에 용, 왼손에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이 사방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약사십이신장들은 경전마다 약간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현장의 번역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을 따른다. 화면 상단에 본존불 좌우로 6위씩 묘사된 十二神將은 ① 궁비라(宮毗羅), ② 발절라(跋折羅), ③ 미기라(迷企羅), ④ 안저라(安底羅), ⑤ 알미라(頽爾羅), ⑥ 산저라(珊底羅), ⑦ 인달라(因達羅), ⑧ 파이라(波夷羅), ⑨ 마호라(摩虎羅), ⑩ 진달라(眞達羅), ⑪ 초두라(招杜羅), ⑫ 비갈라(鼻羯羅) 등이다.

이 불화(1894년)의 주조색은 적색 대의(大衣)를 중심으로 녹색과 군청색을 사용하였다. 특히 본존불의 신광(身光)에 금박을 사용하여 광배 전체를 표현했고, 권속의 보관, 장신구 등에 호분을 두텁게 발라 입체감을 준 뒤 금니로 덧바른 고분법이 애용되었다. 또한 신체의 적절한 비례감과 안정된 구도, 명확한 필선 및 선명한 색감에서 전통적인 불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수화승인 금곡 영환(金谷 永煥)은 1856년 성주 <선석사 대웅전 석가모니후불도>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지역의 불화를 조성했다. 1895년 <남양주 불암사 괘불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15호)>에 금곡 영환이 수화승으로 한봉 창엽, 덕월 응륜 등과 참여했으며, <봉은사 십육나한도(1895년)> 등을 공동으로 제작했다.

1894년에 그려진 이 약사불회도는 19세기 후반기 서울,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수화승인 금곡 영환 등 17명의 화승이 제작한 것으로, 이중 5명(德月堂應嶺, 錦華堂機燭, 明應堂幻鑑, 梵華堂潤益, 在謙)이 1901년에 고종의 후궁 엄비가 시주, 발원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3호)>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 <봉원사 약사불회도>는 왕실발원불화에 참가했던 당대의 대표적인 화승들이 주관하여 조성한 것으로 가름한 얼굴에 섬세하게 묘사된 눈, 코, 입 등 각 세부 묘사가 돋보인다.

한편 조선 후기에 삼세불화로 봉안된 약사불회도는 많지만 약사불화만 따로 봉안된 경우는 드물다. 지금까지 조사된 서울지역의 약사불화는 약 4점 정도 확인되는데, <흥천사 노전 약사불회도(1847년)>, <백련사 약사전 약사불회도(1890년)>, <호국지장사 약사전 약사불회도(1906년)>, <경국사 삼성보전 약사불회도(1939년)> 등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불화는 왕실발원불화에 참여했던 당대 저명한 화승들이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에 희귀하게 남아있는 19세기 약사불화의 화풍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 약사불회도 화기 >

향우: 大清二十年光緒甲午」三月二十九日奉安于」緣化秩」

證明 幻翕喚眞」智潭品藕」誦呪」芝月光洽」比丘宗彦」比丘幸圓」金魚 金谷永煥」永明天機」漢峰莊曄」片手 德月應崙」西峰應憲」明應幻鑑」錦華機燭」東雲就善」梵河潤益」比丘奉華」比丘尙奎」比丘慧寬」比丘致衍」比丘環洽」比丘定心」比丘忠林」比丘在謙」供司 比丘慧雲」比丘慶碩」鍾頭 比丘正郁」比丘南奎」淨桶 金永化」持殿 碧山戒順」雨潭應華」都監 錦溪戒悅」別座 瑞雲性覺」化主 時會大衆老少」比丘沙彌行者青」信士清信女白衣檀」越等」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生當生極樂國同」見無量壽皆共」成佛道」

향좌: 大施主秩」乾命甲辰生金氏」坤命丁巳生李氏」兩」女息己丑生兒只」清信女辛丑生徐氏妙」德心」清信女辛丑生金氏」法成花」坤命乙未生尹氏」乾命乙未生梁氏」坤命乙未生李氏」清信女丙戌生崔氏大」願行」清信丁巳生金氏大」願成」乾命辛未生丁氏」兩」坤命辛亥生李氏」乾命丙午生盧氏」童子戊寅生順成」乾命癸巳生崔氏」兩」坤命辛亥生金氏」坤命丙子生盧氏」坤命壬辰生元氏」以此功德生前安」身當生極樂之」大願」亡乾命甲寅生濟」州后人高氏靈」駕往生極樂之」大願」

오염 및 안료의 균열과 변색, 훼손된 부분이 있으며, 19세기 후반기 서울, 경기지역의 왕실 발원불화를 가장 많이 조성한 대표적 수화승 가운데 한 분인 금곡 영환 등 17명의 화승이 제작한 것으로, 이중 5명(德月堂應崙, 錦華堂機燭, 明應堂幻鑑, 梵華堂潤益, 在謙)이 1901년에 고종의 후궁 엄비가 시주, 발원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3호)>에 참가했다.

이 불화는 금곡 영환의 말기 작품인 동시에 왕실발원불화에 참여했던 당대의 대표적인 화승들이 주관하여 조성한 것으로 가름한 얼굴에 섬세하게 묘사된 눈, 코, 입 등 각 세부 표현이 정교하며, 신체의 적절한 비례감과 안정된 구도, 명확한 필선 및 선명한 색감에서 전통적인 불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지금까지 이 불화는 제작년대 등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울시와 함께한 문화재 지정조사를 통해년대 및 화승의 명단이 확인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불화는 서울지역에 희귀하게 남아있는 19세기 약사불회도의 화풍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봉원사 약사불회도

【 봉원사 독성도(奉元寺 獨聖圖) 】

<봉원사 독성도>는 원래 봉원사 만월전에 봉안되었던 <독성도>이다. 그런데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유리가 있는 나무 액자에 넣어 봉원사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세로 99cm 와 49.2cm 두 폭의 면을 감침질하여 서로 이어 붙였으며 전체크기는 세로 148.2×가로 187.2cm 이며, 화면크기는 세로 140×가로 167cm로 비교적 큰 화면이다.

구성은 화면 중앙에 바닥이 평평하고 넓은 바위 위에 독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다. 독성은 왼손에는 석장을 잡고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있으며 왼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무릎은 바닥에 닿아 있어 매우 편안하게 보이는 운왕좌 자세이다. 화면 가득 표현된 산수배경은 민화적인 요소가 많이 보인다. 향 우측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매우 큰 소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향 좌측으로 소나무의 줄기가 이어져 마치 독성을 감싸 안은 듯한 표현이다. 또한 향 좌측에는 폭포수가 곧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다소 형식적인 모습도 엿보인다. 곳곳의 모란꽃은 만개하였으며 한 쌍의 새 표현은 마치 서로 지저귀며 노래하듯 생동감이 넘친다. 화면 상단부에는 상서러운 구름이 감돌고 있고 중·하단부에는 기암괴석과 풀, 꽃들이 가득하다.

이처럼 <봉원사 독성도>는 다른 독성도와 다르게 시립한 동자, 향로와 같은 기물 등은 묘사하지 않고 화면 중앙에 오직 독성만 표현하여 집중도가 있으며 매우 여유 있는 공간 구성이 돋보인다. 색채는 적색, 녹색, 황색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밝고 경쾌한 색조로 표현하고 있지만 특히 상단에는 얼룩이 심하다. 또한 상단에 햇살이 지상으로 환하게 비치는 듯한 묘사는 매우 독특하며 고분기법을 다소 사용한 소나무와 바위도 섬세하고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 흰 피부색과 빨간 입술이 돋보이는 독성은 머리카락과 눈썹, 수염 등도 흰색으로 표현하여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적색가사에 양녹색 승각기, 청색 군의를 입고 있다.

19세기 후반기부터 불화에 많이 쓰인 바림기법으로 옷주름 표현과 배경의 자연물 등을 표현하였으며 이 당시 유행했던 연화문, 연화당초문, 모란화문 등이 장식되었다. 19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 불화에는 민화의 요소가 풍부해지는데, 특히 독성도나 산신도의 경우 민간과 밀접한 특성을 지닌 까닭이다. 이에 도상의 해학적인 변형과 길상의 상징 등은 독성도에 매우 친근하면서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수표현에 있어서도 청록산수나 십장생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는 불교가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과 민화의 영향이 어우러진 결과라 하겠다.

<독성도 화기>

大韓光武 八年甲辰 五月日 緣化秩 證明比丘
景芸寧〇 誦呪比丘 應〇道降 特殿比丘 滿月亘〇 〇〇道〇
金魚片手 漢峯堂〇〇 東雲寧旭 光芸 鍾頭道〇 頓洽
化主比丘 浣海 京畿右道 楊州三角 山奉元寺 留鎮 施主秩

화기를 살펴보면 ‘金魚片手 漢峯堂〇〇’ 이라고 쓰여 있다. 따라서 봉원사 <독성도>의 화승은 19세기 후반~20세기초반 서울·경기지역에서 큰 활약을 보인 ‘창엽(瑯曄)’ 일 가능성이 크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서울·경기지역의 여러 화승들과 교류를 보여주는 ‘창엽’은 1868년 조성의 남양주 <홍국사 감로왕도>를 시작으로 ‘영환’과 인연을 맺고 있다. 그는 본인이 직접 수화승을 맡아 조성한 불화에서는 영환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으나, 영환이 수화승을 맡아 그린 29점의 불화 가운데 대표적으로 <홍국사 감로왕도, 1868년>, 강화 <청련사 원통암 지장보살도, 1874년>, 1888년의 <칠장사 대웅전 지장보살도>·<칠장사 원통전 신중도>·<칠장사 대웅전 칠성도>·<칠성사 명부전 지장보살도>, 1892년의 <홍국사 영산전 영산회상도>, 1895년 조성의 서울 <봉은사 16나한도 ; 3존자도>·<불암사 패불도> 등의 그림에 15회 이상이나 보조화승으로 참여함으로써 영환과의 화풍상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교류가 짐작된다.

이밖에도 ‘창엽’은 본인이 수화승의 책임을 맡아 직접 그린 1874년 안성 <청룡사 지장보살도>·<청룡사 아미타불도>, 서울 <봉은사 대웅전 감로왕도(1892년)>, 서울 <봉국사 시왕도 ; 13, 24대왕(1898년)>를 통해서는 ‘윤감, 응륜, 승의, 축연, 봉법, 상규’ 등과의 교류가 파악된다.

‘창엽’의 불화 양식은 인물의 형태가 더욱 단정하고 세련되었으며 의습과 복장의 문양 및 인물의 표정 묘사가 자연스럽고 섬세함을 볼 수 있다. 화면 구도와 구성도 조화롭고 색채의 채용에 있어서도 밝은 홍색과 청색 및 녹색이 많이 채용됨으로써 화면이 밝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창엽’의 화풍은 <봉원사 독성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봉원사 독성도>와 유사한 도상은 서울 <진관사 독성도(1907년)>, <백운사 독성도(1910년)>, 서울 <연화사 독성도(1923년)>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연화사 독성도>는 형식과 양식 등이 <봉원사 독성도>와 매우 비슷하여 후대로 전승되어 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봉원사 독성도>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다른 독성도보다 비교적 화면이 크다. 그리고 다른 인물상과 기물 등을 묘사하지 않고 오직 독성만을 표현하여 집중도가 있는 화면구성과 매우 여유 있는 공간구성이 돋보이는 불화이다. 또한 독성의 맑고 인자한 얼굴 표정 묘사와 기법 등이 능숙하며 완성도 있는 형태, 밝고 경쾌한 색채, 유려한 필선, 안정적인 구도, 아름다운 문양 등에서 질적으로 뛰어나다.

그리고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서울·경기지역에서 큰 활약을 보였던 ‘창엽(瑯曄)’의 불화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도상의 형식과 양식이 후대로 전승되어 모본으로서의 역할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봉원사 독성도>를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봉원사 독성도

【 봉원사 산신도(奉元寺 山神圖) 】

봉원사는 영조 24년(1748) 딸인 화평옹주(1727~1748)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친히 땅과 편액을 하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조의 동복형인 의소세자(1750~1752)의 원당으로 지정하여 명실공히 왕실사찰로서 도량의 위상을 갖추었다.

<봉원사 산신도>는 만월전(滿月殿)에 봉안되었던 불화로서 현재는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도 1). 만월전은 약사유리광여래(藥師琉璃光如來)를 주불로서 상단에 모시고 있으며, 1904년 산신단(山神壇)을 만들어 1905년에 산신도를 봉안하였다. 현재 산신도는 훼손과 도난 방지를 위해 유리가 있는 사방 두께 8cm의 나무틀 액자에 끼워져 있다. 폭 90cm, 가로 152cm 정도로 비단천을 마름질하여 가로로 이어 바탕천을 마련하였다. 식서방향을 화면의 세로에 맞춰 바탕천을 잇는 방식은 19세기 말에서 ~ 20세기 초 불화에서 종종 보는 방식이다.

이 불화는 원래 <신중도>, <현왕도>, <감로도>, <구품도>, <삼장도>, <산신도>와 함께 그려졌던 불화로 1991년 봉원사 대웅전 화재로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소실되었고, 만월전에 봉안되었던 이 불화만이 유일하게 보전되었다.

화면에는 폭포가 흐르는 깊은 산중에 소나무를 배경으로 하여 산신과 호랑이, 동자 2명을 배치하고 있다. 화려한 옷깃 장식이 그려진 붉은 색 도포를 입은 산신은 왼손에는 깃털부채를 쥐고 오른 손으로는 수염을 만지며 정면을 향한 채 의자에 앉아 있다. 밝은 색으로 채색된 얼굴에는 세필을 사용하여 주름진 인상을 표현하였고 위엄이 느껴지는 장대한 체구에 비해 얼굴이 작게 그려져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산신의 좌측으로 어깨를 한껏 올린 채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호랑이는 흔히 민화에 그려지는 호랑이와 같이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화면의 향좌측 하단에는 화기가 기록되어 있어 조성배경을 추측할 수 있다.

< 산신도 화기 >

“皇城三角山奉元寺山王幀 奉安于 比丘 隱庵奎應 證明 比丘 廣濟晚悔 比丘 玩海聖淳 金魚 比丘 慧果奉鑑 比丘 漢谷頓法 片手 比丘 斗欽 尙□□悟 □定 施主秩 奉命 尙宮清信女乙未生金氏大起心 乾命 庚申生 姜益馨 光武九年 己巳八月十日 書 比丘 懶□應鍾”

<봉원사 산신도>는 광무9년(光武 9) 즉 1905년 8월 10일에 제작되었다. ‘봉명(奉命)’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황실의 명을 받들어 조성된 불화이다. 시주자는 상궁 1명과 강익형(姜益馨)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 불화를 그린 금어는 해과봉감(慧果奉鑑), 한곡돈법(漢谷頓法)이며, 이들 밑에서 편수로 참여한 인물은 두흙을 비롯한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① 후원자

시주자로 참여한 인물은 을미생(乙未生) 대기심(大起心)이라는 법명을 가진 상궁이다. 또 다른 시주자인 강익형은 고종 35년(1898) 원구단에 배천(配天)하고 제사를 지낼 때 임시 벼슬인 별간역(別看役)을 맡았고, 1901년에는 민관합동단체로 고종의 덕을 새겨 하늘에 전하는 석고단(石鼓壇) 건립을 추진하였다. 1902년 송성 건의소에서는 도사무(都事務)라는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보아 대한제국시기 고종황제의 측근으로서 활동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같은 해 법주사에서 제작된 <팔금강변(八金剛幡)>에 강문환(姜文煥 1841~?) 등과 함께 정삼품(正三品)로 있던 강익형이 임금의 명을 받아 시주를 하였다. 따라서 <봉원사 산신도>은 개인의 발원이 아닌 구한말 대한제국시기 조성된 왕실발원불화의 하나로서 의미를 지닌다.

② 화승

혜과당 봉감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이다. 봉감은 경기지역화승들의 거주지로 알려진 남양주 홍국사 불화소(佛畵所)에서 화업을 처음 시작하였다. 함께 그림을 그린 돈법 역시 봉감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서울 경기지역의 화승이다.

③ 발원 목적

1905년 9월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의 강요가 시작되던 시기이다. 그해 음력 8월 왕실이 발원하여 대대적으로 봉원사에 불화를 조성했던 이유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불교에 의지하여 극복하려했던 간절함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1905년 왕실발원 불사로 조성된 불화 가운데 오직 산신도만이 남아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봉원사 산신도>는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것이다.

<봉원사 산신도>에서 보듯 산신이 한 손으로는 수염을 쥐고 또 한 손으로는 깃털부채를 잡고 정면을 향한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형태는 19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도상이다. 1894년 화승 봉화(奉化)가 그린 문경 <김룡사 산신도>가 봉원사의 선행도상을 보여준다(도 2). 화면 중앙 호랑이에게 기대어 앉거나 바위에 걸터앉아 편안하게 측면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산신 모습과는(도 3) 달리 등반이 의자에 곧곧하게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붉은 색포 안에는 어깨에 용문양이 그려진 청색의 용포(龍袍)를 받쳐 입고 있어 왕과 같은 위엄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산신과 왕이 결합된 산왕의 이미지는 19세기 전반 경부터 {山王經}이 간행되는 등 산신에 왕의 속성을 부여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화승 봉화의 산신도상은 1901년 예운당(禮雲堂) 상규(尙奎)가 그린 서울 종로구 <지장암 산신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84호)를 통해 후대로 전승되었다. 상규는 <지장암 산신도>초본을 바탕으로 시립한 동자의 위치만 바꿔 1903년 <원흥사 산신도>를 제작하였다(도4). 이 불화는 174×194cm의 큰 화면에 산신이 일월병풍이 쳐진 의자에 앉아 있는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어 역시 왕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산신도가 다른 산신도에 비해 유난히 큰 화폭에 그려졌다거나 정면을 향한 채 용포를 입거나 일월병풍이 그려진 산신도의 도상은 구한말 대한제국 시기의 왕실과 연관된 불화를 제작할 때 선호되었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봉원사 산신도>는 병풍을 없애고 낮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화면의 규모나 정면을 향한 채 위엄있게 앉아 있는 산신의 풍모, 그리고 황실의 명을 받들어 조성되었다는 점, 산신도의 크기가 182×152cm으로 여타 다른 산신도보다 크게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왕실 관련 산신도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산신도는 <연화사 산신도>(1923)(도 5), <연주암 산신도>(1929) 등 일제강점기 시대의 불화로 전승되었다.

<봉원사 산신도>는 구한말~일제강점기 유행했던 산신도의 한 유형으로 왕실에서 발원한 봉명불화(奉命佛畵)이다. 여타 다른 산신도보다 유난히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왕의 이미지로 구현된 산왕의 형상은 경상북도와 서울·경기 일대에서 주로 보인다. 이 불화가 조성된 1905년 9월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의 강요가 시작되던 시기이다. 이 불화에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불교에 의지하여 극복하려했던 간절함이 담겨있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봉원사 산신도>와 같은 유형의 불화로서 <지장암 산신도>(1901), <원흥암 산신도>(1903)가 유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대한제국기의 암울한 국제정세가 담긴 역사성과 산신도상의 특이성 등을 고려한다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봉원사 산신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358호

**도시관리계획{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중랑구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06-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I. 열람 기간 : 2020.5.7. ~ 2020.5.21.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2팀 (☎02-2133-6294)

I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중랑구 중화동 일원	510,711.5 (786.1)	• 노후불량 주택이 난립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중화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됨

※ ()는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 그 외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고

VI.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